

“강원도의 힘,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346명,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개 지지 선언

강원 지역의 문화예술인 346명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 지지 선언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산하 잘사니즘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 강원지회,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민예총) 강원지회, 그리고 강원 전역의 생활 문화예술 활동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지지 선언에 참여한 예술인들은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은 극단적 대립과 정치 실패로 위기를 겪었다”며 “이재명 후보야말로 신뢰 회복과 문화국가 재건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첫째, 문화예술인을 정책의 중심에 두는 실질적인 지원과 권리 보장 의지를 평가하며 지지한다.

둘째, 양극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문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점에 공감한다.

셋째, 예술인의 생계 현실 개선과 창작 환경의 안정화를 위한 실천적 의지가 있다.

넷째, 한국문화의 전통성과 세계적 가치를 함께 살리는 비전을 높이 산다.



예술인들은 “교산과 신사임당의 정신이 깃든 강원의 문화예술인들이 오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며, 시민사회와 스며들고, 예술이 국민 삶에 녹아드는 문화국가의 미래를 함께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지지 선언은 2025년 5월 31일, 강원 지역 각지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 346명의 공동 명의로 발표됐다.

[붙임]

- 강원문화예술인 346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문 (전문) -

강원의 "예술인총연합회"와 "민족예술인총연합회" 소속,
그리고 생활문화예술활동가 346명 일동은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이재명을 힘차게 지지합니다!

12.3 내란 이후 대한민국은 중차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타협과 상생의 정치는 부재했습니다. 불의한 권력은 정적 제거 목적의 테러와 집요한 검찰 기소가 실패하자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무장병력으로 침탈하며 헌법 가치를 짓밟고 민생을 질식 상태로 몰아갔습니다. 무도한 친위쿠데타는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뻔했으나, 정의로운 순국영령들의 부름을 받은 민주시민들은 심야의 공포를 뚫고 여의도로 집결하며 비상계엄 해제를 돕고 응원봉을 들고 겨울밤 눈보라와 맞서며 마침내 내란수괴를 탄핵하고 파면하여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그 중심에 이재명 후보자의 결정적 역할이 있었습니다.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예술인총연합회’와 ‘민족예술인총연합회’ 소속 회원, 그리고 지역을 근거로 삶의 문화예술을 추구하는 생활예술가 등 346명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유서 깊은 관동팔경의 경포대에 모였습니다.

어제의 불행과 어둠을 물리치고 찬란하게 부활하는 생명의 바다를 터전으로, 그리고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를 품은 겨레와 국토의 근간 백두대간 영역에서 문화예술의 발을 갈고 씨를 뿌리는 강원의 문예인들은 아래와 같이 이재명 후보자 지지를 결의합니다.

하나, 지원 당국과 문예인을 신뢰의 관계로 개선하는 이재명 후보자의 정책을 지지합니다.

하나, 백범 김구 스승이 꿈꾸었던 문화강국의 이상을 국가 문화정책의 기치로 표방하는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합니다.

하나, 불굴의 소년공 출신 이재명 후보는 양극화의 빈곤에 처한 문화예술인들의 현실을 정책적으로 개선하고 지원할 것을 기대하며 적극 지지합니다.

하나, 사익 추구 집단의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공익성 실현을 증명해 온 이재명 후보자의 실용적 창발성을 적극 지지합니다.

하나, 지역성과 세계적 가치의 등가성을 이해하고 인류 공동체와 지역이 상생하는 한류문화의 전성시대를 개척할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는 지극한 애민정신으로 공직을 수행해 온 이재명 후보자가 문화가 시민사회에 스며들고, 예술이 국민의 삶에 녹아나는 문화강국의 주춧돌을 놓을 이재명 후보의 장도에 함께 할 것을 결의합니다.

교산과 신사임당의 영성이 깃든 경포대에서 2025년 5월 31일 지지선언 참여자 일동